東大時報

發行人 白性都

發行所 서울市中區淸潭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時報社 電話② 1685·1687·6901

(週刊) 月刊 貳百圓 料讀賃 一部定價 貳拾五圓

敎養學部新設

初代敎養學部長에 張元圭敎授

▲張敎養學部長=東京千澤大學佛敎科卒

敎養學部長 張元圭敎授

오래前부터 敎養과程에對한 分립問題를 組織에 놓고熱心해오던 본학교에서는 最近 總長이 臨席한學處會議에서 「敎養學部」를 新設할것에合意를보아 지난九月 九日字로敎養學部部長에 前庶務處長 張元圭敎授를任명하였다 新任한 張敎養學部 部長談에 依하면 오는十月부터 漸進的으로從來에各大學에 所屬되고 있던 敎養 課程을 改編하여一學年在學時에 履修도록 하는方案을 構想中에있다는데 同案이 實現되면 他大學과같이 우리大學도 「敎養學部」가名實共히 독립될것으로보이고있다

庶務處長 更迭

張處長後任으로 申知正氏 起用

申庶務處長

本校에서 지난九月字로 庶務處長 張元圭敎授後任으로 中央佛敎總務院 敎務處長 申知正氏를 起用하였다申處長은 日大宗敎學科出身으로서 해방以後 中高校校監및 죄사副社長職 等을역임한 분이다 ▲申庶務處長=日本大學法文學部 宗敎科卒解放後 淨光中高等學校校監 大光油紙株式會社副社長 全南旅客株式會社副社長 中央佛敎總務院總務部長

東大및 淑大敎授兼敎務處長等 역任

東國文學徒의實力을再認示

吳·朴君 崔·申 等四名受賞

10日國文學會主催로 祝賀會盛況

本校國文學會에서는 今年度 受賞當選作品名을 左와같다

一 申讚均 — 全北日報新春文藝詩當選

二 朴榮烈 — 東亞日報新春文藝當選作品「戰場地역」 崔元斗 — 朝鮮日報新春文藝詩當選當選作品「孝宗大王陵望頭石」

三 朴榮烈 — 本校敎授 徐延祉先生및 本校學生吳學榮(同門) 在學生 文人들이 多數參席했다

四 曹學長 — 現役 多數參席했다 崔元斗(國三) 申讚均等 受賞當選作品및 當選作品名은 左와같다

演劇會發表첫演劇

서울에場劇小된裝丹

本校 文理科大學演劇學科의첫 發表會가本校小劇場에서 열린다 演劇은 復活 沈滯狀態에 빠진우리나라의演劇을 復活시키고 劇藝술 發展을 爲하여放 工夫하기 위하여 十日閉幕하였다 ▲ 參加人員 ▲ 出演 ▲ 盛況 ▲ 觀衆 ▲ 感想 ▲ 參加人員 ▲ 出演 ▲ 盛況 ▲ 觀衆 ▲ 感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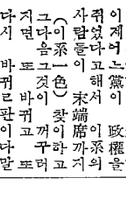
賞鑑音樂土曜

中講堂에서 主催 生生奬學會

本校 二百餘名 奬學生들을 爲하여 지난 三日 中講堂에서 第一回 土曜音樂鑑賞회를가졌다 이날 約三百名가량의學生들은 正午부터 午後 三時 끝까지 초롱히음 樂을 鑑賞하였다 그런데 同회는 이러한 鑑賞회를 앞으로 每週土曜日에 開催하는데 가질 學生들의 많은 호응이있기를바라고있다

朴在雨君 當選 一位

레스링서울市代表選拔大會서



本校 在學 法政大學 四學年 朴在雨君은 지난九月三日 中央體育大會 第四十回 全國 代表選拔大會에서 一位를 獲得하여 서울市 代表로 出戰하게되었다

卒業爲眞撮影

法學科卒業豫定者

法政大學法學部 졸업위원회에서는 지난 一日부터 오는三十日까지 三十日間 卒業앨범을 支路四街 乙 所在 「世界寫場」에서 撮影中에있는데 該當者는 빠짐없이 連絡하기를 바라고있다 前앨범위원會에 事 六人 組撮影이있기를

韓氏의生命을救出

校本 金奎滿君에 稱頌藉藉

지난八月 二十八日路上에서 極甚한 각혈로말미암아 完全잃고 絕望狀態의 사경에빠져있어 메마른이땅에 人情의 꽃을피운데 感謝하다 ▲ 正直 ▲ 憲法에의 忠實 ▲ 公務員 ▲ 人事處理 ▲ 無 ▲ 公務員 ▲ 人事處理 ▲ 無

生命의恩人에되어난佳話

『韓國휴매니스트會』發足을보고

說社

四月革命데모敎授가 中心이된「韓國휴매니스트會」(假稱)가 지난九月四日 서울大學校 敎授會館에서 그역사的發足을보았다 앞으로 韓國휴매니스트聯合(IHEU)에 組織한 韓國휴매니스트會는 一九五二年 和蘭「암스텔담」에서 세계各國의휴매니스트가모여 國際휴매니스트會議를 開催하고 講演會를 四月革命의 생생한 寬眞을 展示하는 遊說啓蒙運動을 活潑히 展開하여 多大한 成果를 걷우고 돌아왔다 즉本校鄭恩培國文學會長 崔仁和英文學會長朴秉洙法學會長 皇甫鍵(法四) 宋永基(法四) 君으로 構成된 遊說啓蒙班은 지난七月十日부터十餘日間에 걸쳐慶南北一帶에(二)公明選擧는 國民들에게 活潑한 活動을展開하여 많은成果를거두고 돌아왔다

많은成果걷우고歸校

本校地方遊說啓蒙班

第二共和國의 기를을 堅固히 하기爲하여 意氣 있은學徒들이 全國各地의 農漁山村으로 나아가니며 國民啓蒙運動을 活潑히 展開한바있거니와 本校各學會長과 四學年學生으로 構成된 遊說啓蒙班에서는 慶南北一帶에 걸쳐 啓蒙講演會를 開催하고 講演會에 四月革命의 생생한 寬眞을 展示하는 遊說啓蒙運動을 活潑히 展開하여 多大한 成果를 걷우고 돌아왔다

東國文學徒의實力을再認示

吳·朴君 崔·申 等四名受賞

10日國文學會主催로 祝賀會盛況

本校國文學會에서는 今年度 受賞當選作品名을 左와같다

一 申讚均 — 全北日報新春文藝詩當選

二 朴榮烈 — 東亞日報新春文藝當選作品「戰場地역」 崔元斗 — 朝鮮日報新春文藝詩當選

三 朴榮烈 — 本校敎授 徐延祉先生및 本校學生吳學榮(同門) 在學生 文人들이 多數參席했다

四 曹學長 — 現役 多數參席했다 崔元斗(國三) 申讚均等 受賞當選作品및 當選作品名은 左와같다

敎育實習希望者

30日까지申請토록

敎務과에서는 오는九月末까지 敎務과에申請하기를 바라고있다 그런데 同敎育實習은 末日까지의 申請者에限하여 約二주間의 敎育實習을 實施하리라한다

敎養學部新設

初代敎養學部長에 張元圭敎授

▲張敎養學部長=東京千澤大學佛敎科卒

敎養學部長 張元圭敎授

오래前부터 敎養과程에對한 分립問題를 組織에 놓고熱心해오던 본학교에서는 最近 總長이 臨席한學處會議에서 「敎養學部」를 新設할것에合意를보아 지난九月 九日字로敎養學部部長에 前庶務處長 張元圭敎授를任명하였다 新任한 張敎養學部 部長談에 依하면 오는十月부터 漸進的으로從來에各大學에 所屬되고 있던 敎養 課程을 改編하여一學年在學時에 履修도록 하는方案을 構想中에있다는데 同案이 實現되면 他大學과같이 우리大學도 「敎養學部」가名實共히 독립될것으로보이고있다

庶務處長 更迭

張處長後任으로 申知正氏 起用

申庶務處長

本校에서 지난九月字로 庶務處長 張元圭敎授後任으로 中央佛敎總務院 敎務處長 申知正氏를 起用하였다申處長은 日大宗敎學科出身으로서 해방以後 中高校校監및 죄사副社長職 等을역임한 분이다 ▲申庶務處長=日本大學法文學部 宗敎科卒解放後 淨光中高等學校校監 大光油紙株式會社副社長 全南旅客株式會社副社長 中央佛敎總務院總務部長

東大및 淑大敎授兼敎務處長等 역任

卒業爲眞撮影

法學科卒業豫定者

法政大學法學部 졸업위원회에서는 지난 一日부터 오는三十日까지 三十日間 卒業앨범을 支路四街 乙 所在 「世界寫場」에서 撮影中에있는데 該當者는 빠짐없이 連絡하기를 바라고있다 前앨범위원會에 事 六人 組撮影이있기를

많은成果걷우고歸校

本校地方遊說啓蒙班

第二共和國의 기를을 堅固히 하기爲하여 意氣 있은學徒들이 全國各地의 農漁山村으로 나아가니며 國民啓蒙運動을 活潑히 展開한바있거니와 本校各學會長과 四學年學生으로 構成된 遊說啓蒙班에서는 慶南北一帶에 걸쳐 啓蒙講演會를 開催하고 講演會에 四月革命의 생생한 寬眞을 展示하는 遊說啓蒙運動을 活潑히 展開하여 多大한 成果를 걷우고 돌아왔다 즉本校鄭恩培國文學會長 崔仁和英文學會長朴秉洙法學會長 皇甫鍵(法四) 宋永基(法四) 君으로 構成된 遊說啓蒙班은 지난七月十日부터十餘日間에 걸쳐慶南北一帶에(二)公明選擧는 國民들에게 活潑한 活動을展開하여 많은成果를거두고 돌아왔다

東國文學徒의實力을再認示

吳·朴君 崔·申 等四名受賞

10日國文學會主催로 祝賀會盛況

本校國文學會에서는 今年度 受賞當選作品名을 左와같다

一 申讚均 — 全北日報新春文藝詩當選

二 朴榮烈 — 東亞日報新春文藝當選作品「戰場地역」 崔元斗 — 朝鮮日報新春文藝詩當選

三 朴榮烈 — 本校敎授 徐延祉先生및 本校學生吳學榮(同門) 在學生 文人들이 多數參席했다

四 曹學長 — 現役 多數參席했다 崔元斗(國三) 申讚均等 受賞當選作品및 當選作品名은 左와같다

敎育實習希望者

30日까지申請토록

敎務과에서는 오는九月末까지 敎務과에申請하기를 바라고있다 그런데 同敎育實習은 末日까지의 申請者에限하여 約二주間의 敎育實習을 實施하리라한다

賞鑑音樂土曜

中講堂에서 主催 生生奬學會

本校 二百餘名 奬學生들을 爲하여 지난 三日 中講堂에서 第一回 土曜音樂鑑賞회를가졌다 이날 約三百名가량의學生들은 正午부터 午後 三時 끝까지 초롱히음 樂을 鑑賞하였다 그런데 同회는 이러한 鑑賞회를 앞으로 每週土曜日에 開催하는데 가질 學生들의 많은 호응이있기를바라고있다

朴在雨君 當選 一位

레스링서울市代表選拔大會서

本校 在學 法政大學 四學年 朴在雨君은 지난九月三日 中央體育大會 第四十回 全國 代表選拔大會에서 一位를 獲得하여 서울市 代表로 出戰하게되었다

韓氏의生命을救出

校本 金奎滿君에 稱頌藉藉

지난八月 二十八日路上에서 極甚한 각혈로말미암아 完全잃고 絕望狀態의 사경에빠져있어 메마른이땅에 人情의 꽃을피운데 感謝하다 ▲ 正直 ▲ 憲法에의 忠實 ▲ 公務員 ▲ 人事處理 ▲ 無 ▲ 公務員 ▲ 人事處理 ▲ 無

生命의恩人에되어난佳話

菩提樹

梵語의 Bodhi 妙吉祥 또는 妙德이라고도 譯하고 妙音 德이라고도 하며, 文殊師利菩薩의 略稱이기도 하고, 이보살은 金剛藏菩薩과 함께 釋迦牟尼의 左脇侍로서 大乘보살의 상首로 알려져 있다 文殊師利所說摩訶般若波羅蜜經을비롯해 般若部의 諸經에 對告衆等으로서 부처님 또는 舍利불등의 問答往復한것을 記錄한것이 大般若經이다 이보살은 特히 般若敎 依하면 緊密한 關係에있음을알수가있다 大智度論第一에慈悲 乘諸經 至極히 說과 氏, 妙德보살등은 他方國土에서온 同伴 보살들은 모두 이 보살의 眷屬이다 文殊師利는 過去 久遠劫 이래 이 보살은 菩提心을 發한 사람이나 指導的 人間 人間 人間

戰後日本의政治過程

金雲泰

第二次大戰以後의 日本의政治過程은 여러측면에서 變動이있었다 첫째 日本의敗戰降伏 뒤이어 聯合國에依한 占領政策이 强行되었으나 그것은 發端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特히 美蘇의深刻한 緊張을背景으로 變轉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고 對日政策의 變動하는 國際政治 美國自身의 變化 등과 그 밑에 깔린 國內政治 勢力과 大衆의 輿論 등 이 모든 것이 서로 作成해 보는 것과 같이 서로 興味가 動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느낀 日本國民에 對해서 몇 字적어보는 것으로 文책을 면할 가는 것으로 한다 日本이라 할 때 이것은 地理的인 位置에 끝일 수도 있고 政治的인 意味에만 限定될 수도 있다 우리 韓國사람에게는 日本이란 무엇보다도 政治的인 意味가 主가 되어 이해되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好戰的인 섬나라 百姓들은 이미 여러차례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日本國民의特質

趙演鉉

日本사람의 人生觀과 世界觀을 韓國사람의 그것과 對照해서 말해보는 것이 本紙가 나에게 주어진 課題다 이런 課題는 무슨 試驗答案을 作成해 보는 것 같애서 별로 興味가 動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日本國民에 對해서 몇 字적어보는 것으로 文책을 면할 가는 것으로 한다 日本이라 할 때 이것은 地理的인 位置에 끝일 수도 있고 政治的인 意味에만 限定될 수도 있다 우리 韓國사람에게는 日本이란 무엇보다도 政治的인 意味가 主가 되어 이해되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好戰的인 섬나라 百姓들은 이미 여러차례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日本의 人生觀과 世界觀은 韓國사람의 그것과 對照해서 말해보는 것이 本紙가 나에게 주어진 課題다 이런 課題는 무슨 試驗答案을 作成해 보는 것 같애서 별로 興味가 動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느낀 日本國民에 對해서 몇 字적어보는 것으로 文책을 면할 가는 것으로 한다 日本이라 할 때 이것은 地理的인 位置에 끝일 수도 있고 政治的인 意味에만 限定될 수도 있다 우리 韓國사람에게는 日本이란 무엇보다도 政治的인 意味가 主가 되어 이해되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好戰的인 섬나라 百姓들은 이미 여러차례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은 그 重要한 것의 하나며 우리의 近代는 바로 三十六年동안이나 그들의 支配下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近世史는 아무런 怨恨없이 日本을 생각할 수 없도록 가르키고 있다 他民族을 별로 侵略한 일없는 우리로서 日本의 그 야갈은 好戰的인 侵略행위를 우리와는 다른 日本의 한 特성으로 볼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 日本의 역史小說이나 時代物映畫를 보면 대개 무사들의 싸움이 그 題材의 全部를 이루고 있다 西歐中世紀의 騎士들처럼 日本의 領主나 頭目에 對한 忠誠心 그리고 溫 義理와 人情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新羅 時代의 花郎은 隨職無退의 勇敢 한 精神이 있었고 인정 춘이 있었다 그러나 新羅 時代의 花郎은 日本의 武士들 생각하면 같지 않다 그 花郎의 더 한층 人情이 있었고 風流가 있었다 그 花郎의 精神이 있었다 그 本領이 있는것은 아니다 그 本領이 있는것은 아니다 그 本領이 있는것은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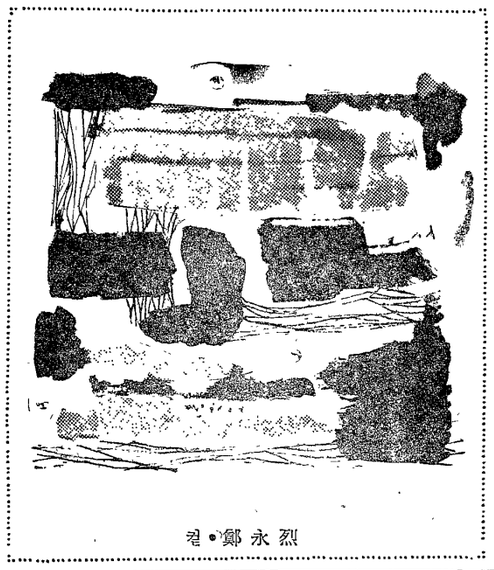
155哩의 休戰線은 渴望한다 平和와 統一을!

韓民族分割의 悲劇

……韓相璉……

悲劇은 없다가 아니다 이 題目은 내가 가린 編輯者가 정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南北韓으로 두 쪽이 나서 살고 누가 모르는 그 슬픔이야 그렇다고 나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라는 것은 아니겠고 구성지더니 우리를 하다는 것도 아닌 막연—하다는 것도 아닌 것이다 막연—하다는 것도 모르는 編輯者의 쓴 것은 그 글을 쓴 것은 아말로 「글짓는—」 이다 그러나 「글짓는 이」 라고 모든 이다 그러나 「글짓는 이」 라고 모든 이다 그러나 「글짓는 이」 라고 모든

圖書館界의 足跡


烈永鄭•컬

사라진 莊園의 모습

村落共同體에 對한 小考

『잉글랜드』北部『롯센딜』을中心으로

經四 金基學

世宗朝의 最初의 弘文館

日人들이 이룬 體制改編되어야 한다

金廣鎭

情表의 들友學한銃執

…… 를 所 訓 山 論 ……

…… 찾 아 서 ……

(下)

本社特派員 張文平·尹青光 記

舊秋風을 아다니며

經三 金榮龜

〈創作〉 오! 쏘레미오 (5)

英四 徐升海

詩 戀人像 ①

國四 朴溢翰

其他

…… 한 송암 大尉任을 마 ……

…… 여기저기에서 많은 ……

…… 啓示板을 보았다 ……

…… 各種 ……

…… 新聞따위가 많이붙어있었다 ……

…… 美第一軍團에서發行하는 A붙주아이 ……

…… 特히눈에 띄이는것은 ……

…… 연두 ▽誌였다 編輯責任者가 바로 한 송암大尉 ……

…… 訓兵의 詩作品이있는가 ……

…… 等 二回에 걸쳐 ……

…… 成果를 ……

…… 그리고 ……

…… 異採로 ……

…… 이들의方法에 依하여 共有地의全部가個 ……

…… 個의農民에게 分割貸與되어 共同放牧況制의存在는 無意味하게되고 ……

…… 村落貸與는 ……

…… 共有地의 分割貸與를 ……

…… 陪審員에 依하여完全히독立한 ……

…… 農民으로 上昇하게 되었고 ……

…… 共同體에 依存하이 ……

…… 個別經營을 營爲하여 ……

…… 分割은 앞서 말한바와같이 絕對主義政府側으로서만 行하였이 ……

…… 農民 ……

…… 側 即 一部를貸與하고 ……

…… 自營地主 ……

…… 同時에 寄生地主로 ……

…… 推進하고 ……

…… 이려十七世紀初에는 ……

…… 이 寄生地主 ……

…… 共有地를 分割 ……

…… 共有地의 分割 ……

…… 農民은 ……

…… 共有地를 ……

…… 農民은 保有 ……

…… 地及 共有지를 ……

…… 完全히독立한 ……

…… 農民으로 上昇하게 ……

…… 되었고 이제는 村落 ……

…… 共同體에 依存하이 ……

…… 個別經營을 營爲 ……

…… 되었다 ……

…… 分割은 앞 ……

…… 共有地의 分割은 ……

…… 主義政府側으로서만 行 ……

…… 아니다 農民 ……

…… 이들의方法에 依하 ……

…… 共有地의全部가個 ……

…… 個의農民에게 分割貸 ……

…… 與되어 共同放牧況制 ……

…… 存在는 無意味하게 ……

…… 되고 또한이를 取締 ……

…… 村落貸與는 ……

…… 判은 不必要하게되었다 ……

…… 그러나 村落共同體를 ……

…… 決定的으로 解決시킨 ……

…… 最後契機는 「헨리七世 ……

…… 「헨리八世」에이 ……

…… 자백스一世」 ……

…… 「제임스 ……

…… 一世」의 絕對君主의 ……

…… 王室財政危機回復策으 ……

…… 로서의 保有地의 賣 ……

…… 却및 共有地의 分割 ……

…… 賣却이었다 ……

…… 그결과 農民은 保有 ……

…… 地및 共有지를 賣渡하